

유족들엔 ‘한탄의 바다’...군민들엔 ‘한숨의 바다’

르포
세월호 2년
진도는 지금

관광객 줄고 양식장 타격
꽃게·조기 조업 통제 피해
수개월 트라우마 치료도
“예전 모습 언제 돌아올까”

“쓸쓸하지. 팽목항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16일 진도군 입회면 팽목항에서 만난 팽목마을 주민 이철린(81)씨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유가족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팽목마을을 40여가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주민들도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찾은 진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추모식이 열린 16일은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로 붐볐지만 지난 9일 진도와 팽목항은 쓸쓸하기만 했다.

지난 9일 팽목항 부두에는 이따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예년 이맘때면 관매도와 조도로 떠나는 인파로 붐볐을 선착장도 한산하기만 했다.

이씨는 “팽목마을과 팽목항 곳곳 슬픔이 없는 곳이 없다”며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언제나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저 배가 하루빨리 울리와야만 팽목마을도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해역과 불과 20~30분 거리인 조도는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넨 곳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인근 연안 양식장은 2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 황금어장으로 불리며 꽃게와 조기 등이 잡히던 세월호 사고 해역 반경 2km는 여전히 조업이 통제되고 있다. 조도 주민들도 2~4개월 가량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조도 이장단장 정성배(53)씨는 “특보가 내려져야만 출항이 제한되던 바다도 이제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배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예전 평일이면 10대, 주말이면 15대에 이르던 관광버스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이 힘겨워했다”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관광만족은 아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관광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진도 주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3개월 뒤인 7월께 ‘진도군법원민대책위원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오전 진도군 팽목항 임시 분향소에 ‘기억할게’라고 적힌 문구 뒤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임시 분향소는 희생자 295명, 미수습자 9명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회’를 꾸렸다. 진도군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들이 참여했다. 희생자 유가족 지원, 세월호 선체 인양,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두차례 추모 행사를 개최했고, 돌아가면서 팽목항 유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주기 추모식에 맞춰 진도군 피해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남중(46) 사무국장은 “지난해 진도군의 피해를 집계해보니 모두 900억원에 이르렀다”며 “인구 3만명 중 절반 가량이 피해를 봤고, 그 피해가 지금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고 해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 사무국장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다시 예전의 진도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아름다운 진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뤄졌지만 상당수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그는 “정부가 진도군에 5년 거처로 내려준 21억원의 상환 날짜가 다가오면 일부 주민들이 빚더미에 파묻혀 진도지역 경제가 또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민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진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 신창초 5학년9반 30여명 편지 쓰고 운동장엔 대형 그림

‘Remember 0416’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

광주 신창초 5학년9반 30여명 편지 쓰고 운동장엔 대형 그림

“오늘 대양그림을 그렸다. 이게 정말 하늘나라로 보내진다니 설됐다. 그동안 세월호에 대해 너무 있고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다.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형, 누나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광주 신창초 5학년 9반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형, 누나들을 위해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쓰고, 그렸다.

5학년 9반 학생들과 담임 서준호 교사와 30여명이 쓴 편지는 특별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8시20분부터 9시까지 40분간 학교 운동장을 대형 편지지 삼아 그림을 그렸다.

프로젝트 이름은 ‘대양그림 그리기-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

서 교사와 일부 학생들이 운동장을 12개의 칸으로 나눠 막대기로 밑그림을 그리자 다른 아이들은 빈 페트병과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 스케치 된 그림 위에 물을 부어 나갔다. 처음에는 ‘이게 뭐냐’라고 의아해 하던 학생들도 점차 모양새를 갖춰가는 그림을 보고 운동장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운동장 하단에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REMEMBER 2014.04.16’이라는 글씨를 큼직하게 썼고, 중앙에는 바다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풍선으로 인양해 하늘로 날려 보내는 그림을 그렸다. 운동장 양쪽 끝에는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천국으로 떠나는 단원과 희생자들의 모습이 놓였다.

이날 그림을 완성한 학생들은 모둠별로 소감을 적은 편지를 썼다. 한 학생은 “우리들의 생각이 하늘 나라에 있는 언니, 오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

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학년 9반 학생들은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에 앞서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수업을 가졌다. 첫 모임에서는 세월호 참사 속 인물들을 알아보기 위해 모듬별 역할극을 통해 세월호를 공부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모듬별로 그리고 싶은 대양그림을 스케치했다. 또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각각의 생각을 시로 옮겨보기도 했다.

그림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뒤에는 5층 교실에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각자가 느꼈던 생각들을 모듬별로 정리했다. 한 학생은 “창문과 바다가 가까워지는 장면이 오빠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단원과 언니 오빠들의 마음을 알겠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보내는 편지와 영상은 블로그(http://blog.daum.net/teacher-junho)에서 볼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목표신항 이동 유력”

팽목항은 김영석 해수부장관

김영석(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옮겨질 장소는 목표신항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추모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미수습자 권재근씨의 형이자 혁규군의 큰아버지인 권오복(62)씨가 “목포신항에 가보니 환경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수심 때문에 팽목항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목표신항의 여건이 충분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7월까지 세월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인양해 미수습자 9분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양 과정을 모두가 지켜보도록 해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하고,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사람의 정성까지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전남도, 진도군 등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제라도 해수부와 지자체를 찾아 주면 작은 의견도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양 안전제도를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수부는 세월호 거처 후보지로 목표신항과 광양항을 고려 중이다. 목표신항은 세월호 침몰지역과 이동거리가 110km로, 이동거리가 240km인 광양항보다 130km 정도 가깝다. /진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섬 생태계 훼손 염소떼 소탕작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섬 생태계 훼손 주범으로 꼽히는 염소떼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개체수가 급증해 ‘미션’ 성공 여부는 미지수.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집중 포획 기간(4월11일~15일)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진도도 조도면 백야도에서 55마리의 염소를 포획하는 등 해상국립공원 2곳에서 62마리의 염소를 포획했다는 것.

○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지에서 포획한 염소 2672마리에 달하지만 여전히 해상국립공원 일대 21개 섬에만 870여 마리의 염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섬 주민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능가할 새로운 포획작전을 주문.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만)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율리우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서구 신흥동 대우파크빌 (별과 원룸)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1억 1천만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림매번)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8천 500만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50평) 2중-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7천 500만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주 대진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 주택)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전남 장성 삼서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장성 상무대 입구, 대로변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48억 8천 6백	1. 전남 나주 봉황면 (토 89평, 건 49평) (전원주택) ◆ 단층 주택, 민원청문장 가능, 전원주택 추천 감정가 1억 5천 5백 - 최저가 1억 9천 9백만
2. 서구 양동 (토 577평, 건 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 카페)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 접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6억 8백	2. 전남 나주 노안면 (토 497평, 건 269평) (전원주택) ◆ 2층 주택, 석정마을 인근, 전원주택 추천 감정가 3억 4천 - 최저가 2억 5천
3. 서구 화평동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뒷편 위치 ◆ 원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	3. 동구 지신동 (토 42평, 건 28평) (주택) ◆ 광주지방법원 북쪽 인근, 차량 진입 가능 감정가 7천 4백 - 최저가 7천 4백
4. 전남 순천 장천동 (토 124평, 건 142평) (근린시설) ◆ 지하 (점포 사무실) 1층 (점포 사무실) 2층 (점포 사무실) ◆ 순천시청 동쪽 인근, 대로변 전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 2천	4. 동구 산수동 (토 43평, 건 25평) ◆ 산수동중학교 인근, 약 2~3m 골목길 감정가 6천 8백 - 최저가 4천 8백
5. 전남 순천 조례동 (토 2332평, 건 3960평) (근린시설) ◆ 7층 건물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주택, 헬스) 복합 건물 ◆ NC백화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단지, 순천 IC 중심지 대로변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 5천	5. 북구 오치동 (토 38평, 건 48평) ◆ 오치동상당 부근, 약 3m 진입로 이용 접근 가능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1억 2천
6. 장성 삼계 (토 367평, 건 1989평) (근린시설) ◆ 상무대 상무아파트 부근, 소로길지점 주차장 완비 감정가 15억 - 최저가 6억 7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6.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6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5억 2천
	(토지 추천) 7.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 5천 6백 - 최저가 1억 8천

경매교육
경매 이해는 대강화시!!!
바로실전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관세 관련 있으신분, 가족사업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2-9700